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혜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정우정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혜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정우정

인 준 서

정우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서 수 연 (인)

심 사 위 원 이 정 윤 (인)

심 사 위 원 박 혜 경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을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는지가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이나,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동성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부터 만 29세 사이의 대학생을 모집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취업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에 응답하였고, 통제변수인 낙관주의, 능력주의 척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은 부적 상관을 보여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개인이 지각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하였다.

주요어: 취업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경제적 이동성 지각, 조절효과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8
1. 취업 스트레스	8
1) 취업 스트레스의 구성 요소	8
2) 취업 스트레스의 심리적 및 사회적 영향	10
2. 주관적 안녕감	13
1)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 및 영향 요인	13
2)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14
3. 경제적 이동성 지각	18
1)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개념	18
2) 경제적 이동성 지각에 관한 선행 연구	20
3)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23
4)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 효과	25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30
IV. 연구 방법	31
1. 연구 참가자	31
2. 측정도구	32
1) 취업 스트레스 척도	32

2) 주관적 안녕감 척도	32
3)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	33
4) 낙관성 척도	33
5) 능력주의 척도	34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35
3. 연구 절차	35
4. 자료 분석	36
V. 연구 결과	37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37
2. 주요 변수들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40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	43
4.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 효과	45
VI. 논의	48
1.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48
2.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49
3.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5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8
표 2. 주요 변수들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	42
표 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에 대한 독립표본 <i>t</i> 검증 결과	43
표 4. 학년에 따른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44
표 5. 전공계열에 따른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44
표 6.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 효과	47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30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이며, 이 수치는 25세에서 64세 사이의 국민 2명 중 1명은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통계청, 2021).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률은 67.1%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2020년 기준 4.0%로 전년보다 0.2% 상승하였다(통계청, 2021). 한국 청년들의 교육수준(69.8%)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 대졸자 실업률(5.7%)은 하위권으로, 37개국 중 28위에 머물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특히, 2019년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은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14계단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까닭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꼽았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은 학업 역량 이외의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점 관리 외에도 토익이나 OPIC 등의 어학 능력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교내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 해외 어학연수 등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보편화 되면서 이는 하나의 경쟁이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 경쟁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을 느끼며(허창구, 2020), 과도한 취업 준비 활동으로 인해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천만봉, 이종구, 2013).

대학생들은 취업에 있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인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는 등(박미진 등, 2009; 최미혜, 2017)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이미숙, 2011; 이지혜, 2014).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및 정서적 독립과 성인으로서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고(강유리, 2006), 취업 여부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심리적 및 사회적 독립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한금상, 서경현, 2015),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취업에 대한 걱정은 졸업을 앞두고나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만 겪는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대학 입학부터 직면하는 중·장기적인 스트레스이다(김경옥, 조윤희, 2011; 김성경, 2003; 심지은 등, 2011; 한혜림, 이지민,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주요 스트레스 중 하나인 취업 스트레스에 주목하였다.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불편감과 긴장감으로 정의되는데(박은혁, 이웅택, 2013; 정의석, 노안영, 2001; 황성원, 1998),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분노,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았고, 심각한 경우 취업 스트레스는 자살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김민경, 2014; 김종운, 박선영, 2017; 김향수, 채규만, 2014; 김혜정, 2004; 박미진 등, 2009; 조선희, 전경숙, 2015). 또한,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음주 행동, 도박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김민경, 2014; 김진영, 2020; 장수미, 경수영, 2013).

이처럼 취업 스트레스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부적응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안녕감 등

개인의 긍정적 심리 상태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김영태, 2014; 오중언, 2017). 구체적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혹은 긍정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희망감, 주관적 안녕감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2017; 김범준, 2011; 김혜정, 2004; 오중언, 2017; 한금상, 서경현, 2015).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조혜정, 2013), 대학생들은 취업을 행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김영우, 2018),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지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으로 구성된다(Diener et al., 1999).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를 다루었던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들 일수록 주관적 웰빙(한금상, 서경현, 2015) 또는 행복(김범준, 2011; 김순희, 이선희, 2015; 류영미, 2020; 이선희 등, 2015; 조혜정, 2013)을 적게 경험하였다. 더불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불행 관련 사건 중 취업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이 대학생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건의 발생 빈도는 불행 관련 사건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김범준, 2011).

이처럼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삶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이론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적응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나,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에는 개인적, 상황적 요

인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날 것이다(김지근, 이기학, 2017; 류영미, 2020; 안성아, 심미영, 2015; 이상희, 2012; 조혜정, 2013). 일련의 선행 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개인의 내적 또는 외적 자원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안녕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왔다. 예를 들어, 류영미(2020)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스트레스 상황을 문제 중심적으로 대처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였을 때,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혜정(2013)은 취업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과 친구 등 의미 있는 관계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인데(Arygle & Martin, 1991),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을 밝혔다.

종합하면,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할지라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및 외적 자원과 스트레스 사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Abidin, 1992; 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변수로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에 주목하였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자신이 속한 사회 내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되는데(Yoon & Kim, 2016), 실제 사회 계층의 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와는 관계없이 개인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지각하는 이동성 정도를 의미한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사회적 이동성 지각(perceived social mobility), 사회경제적 이동성 지각(perceived socioeconomic

mobility), 계층 이동성(class mobility), 혹은 소득 이동성(income mobility)으로도 명명되어 연구되었다(고진용 등, 2019; 이서진, 한혜주, 2021; Browman et al., 2017; Gottschall & Spolaore, 2002; Heiserman et al., 2020; Lee, 2016; Rao et al., 2021; Swan et al., 2017; Wang et al., 2022).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수저계급론’과 헬조선, 탈조선 등의 신조어는 낮은 경제 성장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가 자신의 삶과 다가오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준(2016)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은 수저계급론과 같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개인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전망을 바라보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은 현재와 미래 전망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김성태 등, 2012; 김정훈 등, 2016; 박선경, 이내영, 2019; 이용호 등, 2021; 한준, 2016),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권용주, 2020; 고진용 등, 2019; 이서진, 한혜주, 2021; 한혜주, 이경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동성 측면에서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거나 낮게 지각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Wakslak et al., 2007), 어려운 일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된다(Markus & Nurius, 1986; Oyserman, 2007, 2013; Oyserman & Destin, 2010; Roese & Sherman, 2007). 예컨대, Bernardo 등(2018)은 마카

오로 이주한 필리핀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이 목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한 이주 노동자일수록 더 높은 목표 지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장면에서도 사회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지각 수준은 학업을 지속시키는 동기를 변화시키는 등(Brown et al., 2017)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이동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Reynolds et al., 2019),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원하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 취업 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움을 견디게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개인의 낙관적인 사고(Du et al., 2021)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안녕감과도 관련된다(Yoon & Wong, 2014; Zhao et al., 2017). 즉,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Yoon & Wong, 2014; Zhao et al., 2017).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를 보였고(박인주, 2018),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경험한다(정지혜, 양수진, 2019; 탁진국 등, 2014)는 점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낙관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고, 현재에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지라도 미래에 경제적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노력과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끈기 있게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분위기와 대학생들의 취업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이 지각하

는 경제적 이동성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동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는 원하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므로, 이들에게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약화될 것을 예상하였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경제적 이동성이 낮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낙담하거나 비관하게 되므로,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기화된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측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즉,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취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반면,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취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이 크게 달라진다면,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하지 않는 객관적인 지표 중심으로 경제적 이동성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도구와 주관적인 측정도구를 병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확장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취업 스트레스

1) 취업 스트레스의 구성 요소

스트레스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는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다(장현갑, 강성군, 1998; 최혜림, 1986). 즉,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자원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에 있어 건설적이고 유용한 요인이 될 수 있다(장현갑, 강성군, 1998; 최혜림, 1986).

스트레스는 개인의 내적 및 외적 요구와 대처 능력 간의 불균형을 지각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 행동적 및 생리적 반응이다(김용수, 박현주, 2008).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정체성 확립과 진로 결정 시기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이자영, 최용용, 2012; 주은선, 김경하, 2016)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상, 2003; 백선주, 박주희, 2019; 윤우석, 2016; 전겸구 등, 2000; 천만봉, 이종구, 2013). 구체적으로, Arnett(2007)은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은 삶의 중요한 전환 경험이며, 이 시기의 개인은 직장을 얻고 경제적 독립과 정체성 획득을 기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불확실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Schlossberg, 1981),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졸업 후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것과 이를 대체할 역할이 당장 없다는 것으로부터 역할 수행의 상실감을 경험하고, 직업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과 취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Monteiro et al., 2015).

선행 연구들에서는 취업 스트레스를 여러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황성원(1998)은 취업 스트레스를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대학생이 취업 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경험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불균형과 긴장 상태로 정의하였다. 정의석과 노안영(2001)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박은혁과 이용택(2013)은 취업 준비로 인해 신체적 및 심리적 부조화를 경험하고,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경험하는 상태를 취업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불편감과 긴장감으로, 국내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강유리, 2006; 이미숙, 2011; 정의석, 노안영, 2001; 황성원, 1998).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취업 스트레스 척도는 강유리(2006)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로, 이 척도는 코넬 대학교의 스트레스 측정법(Shepherd et al., 1966)을 황성원(1998)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고, 이후 강유리(2006)가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강유리(2006)는 황성원(1998)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의 4가지 하위요인에서 한 가지를 추가하여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취업 스트레스 척도를 완성하였다. 즉, 황성원(1998)은 취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학업 스트레스, 성격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로 구성하였고, 이에 더하여 강유리(2006)는 취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취업 불안 스트레스를 추가하였다.

취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는 취업에 필요한 학점, 자격증 취득으로 경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력 부족으로

경험하는 학업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황성원, 1998). 성격 스트레스는 취업 준비에 있어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나 자신감의 결여와 같은 문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황성원, 1998). 다음으로,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려움, 낮은 전공 만족도,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 등을 의미한다(황성원, 1998).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즉, 가족환경 스트레스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가족 부양의 책임 등이 있다(황성원, 1998). 마지막으로, 취업 불안 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말한다(강유리, 2006).

강유리(2006)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 이외에도 정의석과 노안영(2001)이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척도와 이미숙(2011)이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척도도 있다. 강유리(2006)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와 달리 정의석과 노안영(2001)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 즉 미취업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및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김지근과 이기학(2017)은 이 척도가 취업에 대한 불안, 두려움, 걱정 등 개인의 내부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숙(2011)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는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과 신체화 관련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나, 이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미숙(2011)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는 활용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스트레스의 개인 내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강유리(2006)의 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2) 취업 스트레스의 심리적 및 사회적 영향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김영상, 2003; 정병일 등, 2017), 취업에 대한 걱정은 졸업을 앞둔 3, 4학년 시기뿐만 아니라 신입생 시기부터 경험하는 문제로 나타났다(김경옥, 조윤희, 2011; 김정아, 2014; 심지은 등, 2011).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높고, 이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만 한정된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신입생부터 직면하는 중·장기적인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다(심지은 등, 2011).

한편, 취업 스트레스는 단순히 고용 시장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요인과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취업 스트레스는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성별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영미, 2020; 이선희 등, 2015; 조혜정, 2013; 한금상, 서경현, 2015). 다음으로, 학년(김혜정, 2004; 황성원, 1998), 전공 만족도(류영미, 2020; 황성원, 1998) 및 전공계열(조선희, 전경숙, 2015; 황성원, 1998)에 따라서도 취업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 수준은 높았고,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공학계열이나 사범계열 등 다른 전공계열의 대학생들보다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도 있다.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주관적 경제 수준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지각하거나 낮다고 지각하는 개인일수록 취업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김혜정, 2004; 박성환, 2006; 황성원, 1998). 그밖에도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여겨지는 낙관성은 취업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정, 2014). 구체적으로, 강유리(2006)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낙관성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취업 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점수와 척도의 각 하위요인들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더 낮았다(문수정, 2014).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낙관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취업 준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Carver & Scheier, 1991)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았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및 행동적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먼저,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신체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일수록 심혈관계, 소화기계, 두통,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권, 김해숙, 2021; 최승혜, 이해영, 2013).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식욕이 없거나 폭식을 하는 등의 섭식 관련 문제를 보이기도 하였다(박미진 등, 2009; 황주희, 박현주, 2020). 취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취업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김다영, 2019; 윤동춘, 2019; 윤우석, 2016; 장재윤 등, 2004), 불안(박미진 등, 2009) 및 취업 불안(김성식, 이정재, 2017)의 수준이 높았고, 학업 수행에 있어 무력감을 경험하는 등 학업 소진(이현숙, 배상윤, 2019)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행동적 측면에서도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고경필, 심미영, 2015), 취업 스트레스는 인터넷이나 음주 문제와 같은 중독 행동(장수미, 경수영, 2013)과 더 나아가 자살 충동(강경훈, 2010; 윤우석, 2016)이나 자살 사고(김향수, 채규만, 2014; 서인균, 이연실, 2014; 윤명숙, 이효선, 2012)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및 정서적 독립을 하고, 성인으로서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강유리, 2006). 취업 여부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심리적 및 사회적 독립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인 만큼(한금상, 서경현, 2015),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취업 스트레스는 장기간 지속되며, 대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주요 스트레스 중 하나인 취업 스트레스에 주목하고, 취업 스트레스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주관적 안녕감

1)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 및 영향 요인

행복을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간주하였을 때(조명한, 차경호, 1998), 이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측면인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적 측면인 긍정 및 부정 정서의 경험으로 구성된다(Diener et al., 1999). 삶에 대한 만족감은 개인이 세운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긍정 및 부정 정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서이다. 이때, 정서 경험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이유는 두 정서 경험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iener & Emmons, 1984). 그러므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고, 즐거움과 행복과 같은 긍정 정서는 강하게 경험하는

반면, 짜증이나 무기력함과 같은 부정 정서는 적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Diener et al., 1999).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는 내적 및 외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 학년,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 등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영미, 2020; 이선희 등, 2015; 이윤주, 2011; 조금이, 박현숙, 2011; 조혜정, 2013; 한금상, 서경현, 2015; 황성원, 1998). 구체적으로, 남성인 경우(류영미, 2020; 이선희 등, 2015; 조혜정, 2013; 한금상, 서경현, 2015), 저학년인 경우(이선희 등, 2015),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류영미, 2020; 이선희 등, 2015; 황성원, 1998),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김순희, 이선희, 2015; 이선희 등, 2015; 조금이, 박현숙, 2011; 조혜정, 2013)에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으며, 월 수입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따라서도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주, 2011; 조금이, 박현숙, 2011; 이선희 등, 2015). 또한, 낙관성(임원균, 2015), 감사 성향(조금이, 박현숙, 2011), 자기존중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선희 등, 2015)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도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었다. 즉,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거나 자신의 상황과 타인의 기여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대학생일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행복 및 불행 관련 사건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행복 관련 사건 중 용돈 혹은 월급을 받는 것은 대학생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행 관련 사건 중 취업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은 그들의 불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준, 2011). 더 나아가서, 지난 1년 간 연구 참가자들이 불행 사건 관련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살펴본 결과, 취업에 대한 걱정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총 30가지의 불행 관련 사건 중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더불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과 일관되게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희, 이선희, 2015; 류영미, 2022; 서경현, 2011; 안성아, 심미영, 2015; 임원균, 2015; 장형순, 박현주, 2021; 정지혜, 양수진, 2019; 조혜정, 2013; 한금상, 서경현, 2015; Coffman & Gilligan, 2002).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취업 관련 사건은 그들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일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인이지만,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적 관계의 강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및 외적 자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지근, 이기학, 2017; 류영미, 2020; 안성아, 심미영, 2015; 이상희, 2012; 조혜정, 2013). 관련하여, 조혜정(2013)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일수록 취업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부적 관계가 약하게 나타난 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일수록 취업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부적 관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이 스트레스를 완충함으로써(Cohen & Mackay, 1984; Henderson, 1984)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권혁우(2017)의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감사 성향 훈련에 주목하였다. 감사 성향은 자신의 경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건을 재해석하고(Tedeschi & Calhoun, 2004), 성장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김경미, 김정희, 2011). 이러한 감사 성향은 단순히 정서적 과정이 아닌 인지적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고(김경미, 김정희, 2011; 노지혜, 이민규, 2011; Cacioppo et al., 1999),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에서도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관련된다(권혁우, 2017; 김종운, 이지은, 2015). 따라서 연구자는 취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치 집단에는 감사 성향 훈련 프로그램을, 통제 집단에는 이상심리학 이론 수업을 듣는 심리 교육 프로그램을 총 4회 실시하였고, 두 조건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감사 성향 훈련을 받은 집단은 심리 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취업 스트레스 전체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 정신적 안녕감 및 행복 점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더불어, 감사 성향의 작용 기제 중 하나로서 삶에 대한 의미감을 측정하였을 때, 감사 성향 훈련을 받은 집단은 심리 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삶의 의미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이러한 삶의 의미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낮추고, 삶의 만족도, 정신적 안녕감 및 행복은 높였다. 이와 유사하게, 감사 성향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김미령, 2014).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감사 성향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감사 성향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감사 성향이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스트레스 대처에 효과적인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권미주(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조망 확대의 조절 역할을 살펴보았다. 정서적 안녕감은 부정적

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심리 상태이다(Bradburn, 1969). 조망 확대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경험하는 정서를 다루고자 다른 사건과 비교하는 인지적 과정이며, 이를 통해 부정적 사건의 심각성을 낮추는 것으로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하나이다.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의 정서적 안녕감으로 이어졌으나, 이때 조망 확대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정서적 안녕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취업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대학생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지만,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정도는 개인적 및 환경적 자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김지근, 이기학, 2017; 이상희, 2012). 더불어, 대학생들은 미래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서경현, 이경순, 2010),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 안에서 의미를 찾는 노력을 통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이민규, 2012).

과거 한국 사회는 사회적 및 경제적 계층의 이동이 매우 높은 사회로 보고되었으나(양정승, 2012), 최근 한국 사회는 사회적 및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이 더 이상 활발하지 않다고 보고된다(김봉근 등, 2012). 그러나 경제적 계층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하지 않으며(한준, 2016; Yoon & Wong, 2015),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적 이동성 수준은 실제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보다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더 나은 통찰력을 제공한다(왕위 등, 2015; 이승현 등, 2016; Jeon, 2020; Lewin, 1935).

또한, Rabkin과 Struening(1976)이 스트레스가 개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부적응이나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경제적 이동성 지각

1)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개념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같은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믿음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의 정도는 경제적 이동성 지각(perceived economic mobility)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한다(Yoon & Kim, 2016).

경제적 이동성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수로도 측정할 수 있으나(Ewig et al., 2016), 마케팅 분야와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지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혜주, 이경미, 2017; Yoon & Kim, 2016, 2018). 즉,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실제 사회에서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계층 이동성 정도를 측정한다(이서진, 한혜주, 2021).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다양한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연구되었다(고진용 등, 2019; 이서진, 한혜주, 2021; Browman et al., 2017; Gottschall & Spolaore, 2002; Heiserman et al., 2020; Lee, 2016; Rao et al., 2021; Swan et al., 2017; Wang et al., 2022).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

동성 지각은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오르내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Day & Fiske, 2016). 사회경제적 이동성은 개인이 한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상위 또는 하위 계층으로 이동 가능한지를 의미한다(이서진, 한혜주, 2021). 전술한 용어들과 유사하게, 계층 이동성 지각은 사람들이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내릴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지각과 믿음으로 정의되고(Rao et al., 2021), 소득 이동성은 소득 사다리에 따라 경제적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것(Shariff et al., 2016; Wiwad, 2015)으로 정의되어 연구되었다. 이처럼 이동성 지각 관련 용어들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한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계층에서 상향 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이동성 중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상향 이동 가능성을 측정하는 경제적 이동성 지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연구자들은 경제적 이동성 지각을 측정할 때, 단일 문항(예: “경제적 사다리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나 사회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예: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을 대안으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은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개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구성 타당도, 내적 일관성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같은 심리측정적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Hinkins, 1995; Yoon & Wong, 2015). 다음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적 이동성 지각이나 계층 이동성 지각 혹은 소득 이동성을 측정할 때, Yoon과 Wong(2015)이 개발한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Perceived Economic Mobility Scale)를 사용하였다(이서진, 한혜주, 2021).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신분제와 같은 사회 구조적 조건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 경제적 이동의 제한과 불평등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주된 사회 문제이다(고진용 등, 2019; 한혜주, 이경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 이동성 중에서도 경제적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하였다.

Yoon과 Wong(2015)은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가 반드시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Fischer(2009)의 연구에서 대안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된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지각은 실제 경제적 이동성 수준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더불어,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은 실제 경제적 이동성 수준 외에도 종교적 성향, 정치 태도, 개인적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에서 지각한 경제적 이동성 수준은 실제 이동성 수준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Yoon & Wong, 2015). 또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데(Yoon & Wong, 2015),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을 더 잘 견디고(Cheung, 2016; Davidai & Gilovich, 2015), 재분배 정책(Yoon & Wong, 2015)에 반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더불어,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이 실제 경제적 이동성 수준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바(Gugushvili, 2016; Reynolds et al., 2019), 한 사회에서도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에 따라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이나 복지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과 선호를 보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나 정치적 논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경제적 이동성 지각에 관한 선행 연구

경제적 이동성 지각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낙관성 및 능력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이내영, 2019; Davidai, 2018; Day & Fiske, 2016; Reynolds et al., 2019; Yoon & Wong, 2015). 먼저,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낙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 Wong, 2015). 구체적으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낙관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경제적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에 대해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ynolds et al., 2019). 더불어,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능력주의(박선영, 이내영, 2019; Davidai, 2018; Day & Fiske, 2016)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개인의 성별, 인종, 계층 및 그 밖의 특징과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획득한다고 생각하였다.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출생 시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출생과 함께 부여된 경제적 상태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Yoon & Wong, 2015).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에 반영한다(Kwon & Yi, 2021). 즉,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가 유동적이라고 지각할 때 소득 불평등을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사회의 실제 이동성 수준이 유동적이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Fischer, 2009).

개인이 지각한 경제적 이동성 수준은 서로 다른 시간 관점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Yoon & Kim, 2016; Kwon & Yi, 2019, 2021). 먼저,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현재 및 미래 시간 관점과 관련이 있다(Bak & Yi, 2020; Yang & Zhao, 2019). 예컨대, Yang과 Zhao(2019)는 참가자들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을 높거나 낮게 조작한 다음, 참가자들이 지각한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한 참가자들은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한 참가자들보다 현재 시간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추었고,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한 참가자들은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한 참가자들보다 미래 시간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고, 미래에 재정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태보다 미래 성과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에 재정적인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보다 현재에 더 치중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소비 행동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진용 등, 2019; 한혜주, 이경미, 2017; Yoon & Kim, 2016). 예컨대, 한혜주와 이경미(2017)는 사회계층 이동성 지각 수준을 실험적으로 조작하고, 그에 따라 실용적 혜택이 강조된 제품과 상징적 혜택이 강조된 제품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노트북의 실용적 측면을 광고하였을 때와 노트북의 프리미엄 이미지에 대한 상징적 측면을 광고하였을 때, 사회계층 이동이 정체되었다고 인식하는 참가자들은 상징적 혜택이 강조된 제품을 실용적 혜택이 강조된 제품보다 덜 선호하였다. 더 나아가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징적 제품에 대한 선호 감소의 이유로 계층 이동 지각에 따른 소비자들의 자기표현 동기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계층 이동이 정체되었다고 지각한 소비자들은 자기표현 동기가 감소하여 상징적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프리미엄 혹은 고가의 상징적 제품을 통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자아상을 고양하고,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상위 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지각할 때의 상징적 제품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보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계층 이동성 지각은

자기표현 동기를 감소시키고, 상징적 제품을 덜 선호하게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 이동성 지각 수준이 일상에서의 소비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혜주, 이경미, 2017).

이와 유사하게,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에 따른 물질주의자들의 충동소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한 물질주의자들은 충동소비를 더 적게 하였고,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한 물질주의자들은 충동소비를 더 많이 하였다(Yoon & Kim, 2016).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노력이 성공을 이끌고 미래에 충분한 보상을 안겨 줄 것이라는 믿음은 장기적인 목표를 강화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물질주의자들은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인 목표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충동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자기 조절 이론(Baumeister & Vohs, 2007)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물질주의자들은 장기적인 목표와 행동을 형성하려는 자기조절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동소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물질주의자들은 현재 소유하는 것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을 희생하고,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을 위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관적으로 믿는 정도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한 사회 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바(Fischer, 2009), 이는 서로 다른 행동 패턴을 가져온다(Yoon & Kim, 2016).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취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3)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들은 사회 이동성이나 사회 계층 이동성 수준을 서로 다르게 지각한다(Day & Fiske, 2016; Kraus & Tan, 2015).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하위 계층의 사람들도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다(Day & Fiske, 2016).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은 서로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연구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oon & Wong, 2014). 또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소득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인 소득 이동성 지각과 정서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소득 이동성이 높다고 생각한 참가자들은 소득 이동성이 낮다고 생각한 참가자들보다 행복 수준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Wiwad, 2015).

미국 이민자들의 계층 이동성 지각을 다루었던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의 정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Alcantara 등(2014)은 라틴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주관적인 이동 가능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이동성 지각이 스스로 보고한 신체 건강 및 주요 우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한 라틴계 이민자일수록 자신은 건강하지 않고 우울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사회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한 이민자들은 자신의 신체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 또한, 플로리다 주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이동성 지각과 정서적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의 증가와 관련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의 감

소와 각각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aquera & Aranda, 2017).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정서적 스트레스,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의 악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건의 호전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는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도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 지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개인의 믿음(Yoon & Kim, 2016)은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역할을 직접 검증하였던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희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 조절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희망은 낙관주의, 유연한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이 높으며(Snyder, 2002),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pez et al., 2003). 또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

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안을 더 많이 만들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점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Snyder et al., 1991). 일례로, 장정현과 고재홍(2010)은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희망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 및 학교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 사이의 관계를 완화시켰고, 진로 및 삶의 가치관 등 자기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신체 증상 사이의 관계도 완화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즉, 희망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도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폭이 크지 않았고, 자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지라도 신체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는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고통 인내력이 더 높고, 고통을 다루는 전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Snyder, 2002) 학교 및 자기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희망은 스트레스로부터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수(Ong et al., 2006)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Cheung(2016)은 희망을 미래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계층 상승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의하고,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희망이 소득 불평등과 삶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희망이 증가하였으며, 희망은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 중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더라도 미래에는 자신도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 경제 성장이 비교적 더디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불평등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약

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래에 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현재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사회 비교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견디게 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희망은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으로, 낙관성의 양으로도 정의되는데(Gottschalk, 1974), 이러한 특징은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유사하다. 즉,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낙관성과 관련되고(Du et al., 2021),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취업 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Reynolds et al., 2019),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 정서는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일 뿐만 아니라(Lopez et al., 2003),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하나의 도전으로 바라보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한다(Snyder, 2002).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희망은 경제적 이동성과 관련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즉,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희망의 목표지향적인 특징과 유사하게 목표 지속성 및 학업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Bernardo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마카오로 이주한 필리핀 노동자들 중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한 이들은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한 이들보다 더 높은 목표 지속성을 보였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유사하게, 사회적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한 개인들은 힘든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바쁜 것을 더 높은 지위와 성공을 얻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았다(Bjørnskov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및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지각은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Browman 등(2017)은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학업 장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 지속성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을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학업 지속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미래에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학업을 지속시키는 학업적 탄력성을 강조하는데, 학업적 어려움을 직면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학생들에게 미래의 재정적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Destin & Oyserman, 2010). 교육은 사회 계층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므로(Bullock & Limbert, 2003), 교육 장면에서의 동기 부여는 성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Sternberg, 2017). 따라서 경제적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Browman et al., 2019; Markus & Nurius, 1986; Oyserman, 2007, 2013; Oyserman & Destin, 2010; Roese & Sherman, 2007), 이러한 작용은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대학생일수록 취업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고(박인주, 2018),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지혜, 양수진, 2019).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목표 추구 행동을 이끌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삶의 만족감 저하를 막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취업과 같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견디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대안적인 경로를 만듦으로써 삶의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거나 생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에게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이나,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에게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Ⅲ.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 문제 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될 것인가?

가설 1.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은 낮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인가?

가설 2.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을 더 저하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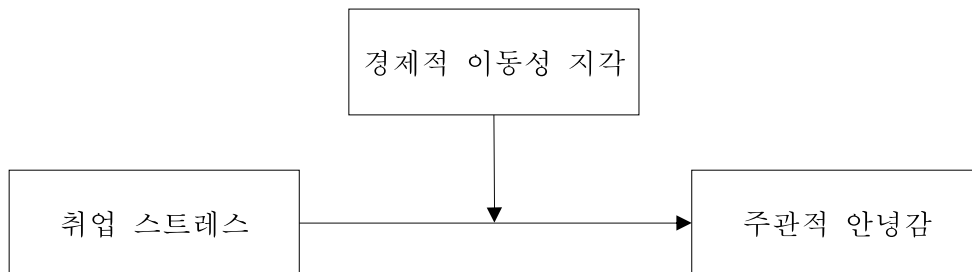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한국의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참가자 수 산출을 위하여 G-power 3.1.9.7을 사용한 결과, 효과크기 .1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에서 최소 215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연구 참가자들은 다섯 가지 척도가 포함된 긴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므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중도 탈락자 및 불성실 응답자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로 요구되는 연구 참가자 수의 약 1.5배 이상의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SNS, 대학 커뮤니티(예: 에브리타임) 및 포털 사이트(예: 네이버) 카페에 연구를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총 453명으로, 연구 홍보물에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가자들 중 스크리닝 과정에서 탈락한 연구 참가자들과 연구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중도 탈락한 연구 참가자들, 응답 소요 시간이 3분 이하인 연구 참가자들은 중도 탈락자 및 불성실 응답자로 분류하여 자료 분석에 제외하였다. 또한, 핸드폰 번호가 중복되어 연구에 두 번 이상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연구 참가자들의 경우에도 첫 응답 자료만 남기고 나머지 응답 자료는 분석에 제외하였다. 그밖에도 동일한 IP 주소로 연구에 2번 이상 참여한 연구 참가자들의 자료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자료 분석에 총 213명의 응답만이 포함되었으며,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72세($SD=2.30$ 세)였다.

2. 측정도구

1) 취업 스트레스 척도

코넬 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기초로 하여 황성원(1998)이 개발하고 강유리(2006)가 수정 및 보완한 취업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성격 스트레스 6문항(예: “나는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 가족 환경 스트레스 5문항(예: “나의 대학 공부로 인해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므로, 내가 꼭 취업해서 갚아드려야 한다.”), 학업 스트레스 4문항(예: “나는 취업에 있어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환경 스트레스 4문항(예: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취업 불안 스트레스 3문항(예: “요즘 나는 취업 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 복용이 늘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응답하였으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2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성격 스트레스 .86, 가족 환경 스트레스 .83, 학업 스트레스 .82, 학교 환경 스트레스 .83, 취업 불안 스트레스 .69이었다.

2) 주관적 안녕감 척도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9문항으로, 삶의 만족도 3문항(예: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긍정 정서 3문항(예: “즐거운”), 부정 정서 3문항(예: “짜증나는”)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응답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느끼지 않았다), 6점: 매우 그렇다(항상 느꼈다)). 점수는 삶의 만족도 점수와 긍정 정서 점수의 합에서 부정 정서 점수를 뺀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산출한 값의 평균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4였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삶의 만족도 .84, 긍정 정서 .80, 부정 정서 .82이었다.

3)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

Yoon과 Wong(2015)이 개발한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Perceived Economic Mobility Scale: PEM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8문항(예: “자녀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부모 소득에 달려 있다.”, “출생 환경과 상관없이 큰 부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응답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되도록 문항 중 일부는 역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4) 낙관성 척도

낙관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낮아지고(문수정, 2014), 주

관적 안녕감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임원균, 2015)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낙관성을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Scheier, Carver와 Bridge(1994)가 미래의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삶의 지향성 검사 척도(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진술 3문항(예: “나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부정적 진술 3문항(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과 함께 연구 참가자가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든 허위 진술 4문항(예: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응답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척도 중 허위 진술 4문항은 점수 합산 시 제외하고, 부정적 진술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도록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허위 진술 문항들을 제외한 낙관성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71이었고, 긍정적 진술은 .65, 부정적 진술은 .45이었다.

5) 능력주의 척도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개인의 성별, 인종, 계층 및 그 밖의 특징과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획득한다는 관점인 능력주의(박선영, 이내영, 2019; Davidai, 2018; Day & Fiske, 2016)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능력주의 수준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측정에는 박선경과 이내영(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예: “한국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응답하였다(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문항 중 일부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주의 수준이 높도록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능력주의 관점에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67이었다.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계열 및 전공 만족도, 주관적 학업 성적 수준, 취업 준비 수준, 월 평균 가계 소득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취업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및 경제적 이동성 지각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변수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에 따라 주요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3. 연구 절차

SNS, 대학 커뮤니티 및 포털 사이트(예: 네이버) 카페를 통해 연구를 홍보하고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는 질문지 첫 페이지의 연구 소개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고 연구 참가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수행되었다. 척도 제시 순서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질문지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 낙관성 척도, 취업 스트레스 척도,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 능력주의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순서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가는 약 5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사후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에 있는 연구 참가자를 위해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질문지 작성을 완료한 연구 참가자에게는 2,000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을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20.0과 PROCESS macro 3.0(Hayes, 2009)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Hayes, 2009)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주요 변수들과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낙관성 및 능력주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들은 남성 76명(35.7%), 여성 137명(64.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연구 참가자들의 학년은 4학년이 81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 59명(27.7%), 2학년 37명(17.4%), 1학년 24명(11.3%) 순으로 많았다. 연구 참가자 중 5학년 이상은 12명(5.6%)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53명(24.9%), 자연계열 46명(21.6%), 공학계열 45명(21.1%), 사회계열 41명(19.2%) 순으로 많았으며, 나머지 연구 참가자들의 전공계열은 사범계열 16명(7.5%), 예체능계열 6명(2.8%), 기타 6명(2.8%)이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들의 전공 만족도 수준은 ‘약간 만족한다’에 응답한 연구 참가자들의 수가 79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59명(27.7%)과 ‘매우 만족한다’ 35명(16.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연구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성적 수준의 경우, ‘보통이다’에 응답한 연구 참가자들의 수가 100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높은 편이다’에 응답한 연구 참가자들의 수가 62명(29.1%)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연구 참가자들의 주관적 취업 준비도에서는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에 응답한 연구 참가자들의 수가 92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에 응답한 연구 참가자들의 수가 72명(33.8%)으로 그 다음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인 편이다’에 응답한 연구 참가자들의 수가 113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진보적인 편이다’ 51명(23.9%)과 ‘대체로 보수적인

편이다' 38명(17.8%)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연구 참가자들의 월 평균 가계 소득은 '150만원 이하'에 응답한 수가 51명 (23.9%)으로 가장 많았고, '25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0명(14.1%), '451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27명(12.7%)과 '551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25명 (11.7%)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들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5와 6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수가 54명(25.4%)과 43명(20.2%)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13)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76	35.7
	여성	137	64.3
학년	1학년	24	11.3
	2학년	37	17.4
	3학년	59	27.7
	4학년	81	38.0
	5학년 이상	12	5.6
전공계열	인문계열	53	24.9
	사회계열	41	19.2
	사범계열	16	7.5
	공학계열	45	21.1
	자연계열	46	21.6
	예체능계열	6	2.8
	기타	6	2.8
전공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2	5.6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28	13.1
	보통이다	59	27.7
	약간 만족한다	79	37.1
	매우 만족한다	35	16.4
주관적 성적 수준	매우 낮은 편이다	5	2.3
	낮은 편이다	27	12.7
	보통이다	100	46.9

	높은 편이다	62	29.1
	매우 높은 편이다	19	8.9
주관적 취업 준비 수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21	9.9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92	43.2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	72	33.8
	거의 준비되었다	19	8.9
	매우 준비되었다	9	4.2
주관적 정치 성향	매우 진보적인 편이다	7	3.3
	대체로 진보적인 편이다	51	23.9
	중도인 편이다	113	53.1
	대체로 보수적인 편이다	38	17.8
	매우 보수적인 편이다	4	1.9
월 평균 가계 소득	150만원 이하	51	23.9
	151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13	6.1
	25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0	14.1
	351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20	9.4
	451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27	12.7
	551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25	11.7
	651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16	7.5
	751만원 이상 850만원 이하	7	3.3
	851만원 이상 950만원 이하	7	3.3
	951만원 이상	17	8.0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하위)	3	1.4
	2	3	1.4
	3	24	11.3
	4	30	14.1
	5	54	25.4
	6	43	20.2
	7	34	16.0
	8	13	6.1
	9	6	2.8
		10(상위)	3

2. 주요 변수들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연구의 주요 변수들과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취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r=-.48, p<.001$), 경제적 이동성 지각($r=-.17, p<.05$)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통제변수인 낙관성($r=-.37, p<.001$) 및 능력주의($r=-.17, p<.05$)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고,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과 낙관성 및 능력주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 스트레스와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간의 상관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는 연령($r=.27, p<.001$) 및 학년($r=.19, p<.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전공 만족도($r=-.38, p<.001$), 주관적 성적 수준($r=-.21, p<.01$), 주관적 취업 준비 수준($r=-.20, p<.01$), 월 평균 가계 소득($r=-.22, p<.01$)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r=-.30,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취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정치 성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감은 경제적 이동성 지각($r=.28,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은 통제변수인 낙관성($r=.63, p<.001$) 및 능력주의($r=.21, p<.01$)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수록 낙관적이고 능력주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간의 상관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전공 만족도($r=.48, p<.001$), 주관적 성적 수준($r=.27, p<.001$), 주관적 취업 준비 수준($r=.30, p<.001$)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r=.24, p<.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연령, 학년, 주관적 정치 성향 및

월 평균 가계 소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통제변수인 낙관성($r=.34, p<.001$) 및 능력주의($r=.66,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낙관적이고 능력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간의 상관에서는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 전공 만족도($r=.20, p<.01$), 주관적 성적 수준($r=.14, p<.05$), 주관적 취업 준비 수준($r=.28, p<.001$)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r=.21,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연령, 학년, 주관적 정치 성향, 월 평균 가계 소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2. 주요 변수들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N=2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478***	1											
3	-.173*	.282***	1										
4	-.371***	.627***	.340***	1									
5	-.170*	.210**	.658***	.205**	1								
6	.272***	-.069	.052	.004	-.019	1							
7	.187**	-.069	.063	-.005	.011	.663***	1						
8	-.379***	.475***	.202**	.291***	.148*	-.037	.019	1					
9	-.214**	.268***	.136*	.273***	.147*	.067	.135*	.349***	1				
10	-.204**	.300***	.275***	.324***	.147*	.339***	.295***	.329***	.310***	1			
11	-.132	-.066	.124	-.057	.218**	.070	-.017	.103	.045	.028	1		
12	-.215**	.059	-.005	-.073	.080	.071	.159*	.103	.134	.114	.060	1	
13	-.299***	.239**	.206**	.188**	.165*	.027	.031	.219**	.233**	.236**	.167**	.320***	1
<i>M</i>	2.85	3.78	3.19	3.92	3.13	22.72	3.09	3.46	3.30	2.54	2.91	4.38	5.42
<i>SD</i>	0.89	0.79	0.89	0.80	0.88	2.30	1.11	1.09	0.89	0.94	0.79	2.82	1.72

주. 1=취업 스트레스, 2=주관적 안녕감, 3=경제적 이동성 지각, 4=낙관성, 5=능력주의, 6=연령, 7=학년, 8=전공 만족도, 9=주관적 성적 수준, 10=주관적 취업 준비 수준, 11=주관적 정치 성향, 12=월 평균 가계 소득, 13=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p < .05$, ** $p < .01$, *** $p < .001$.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학년 및 전공계열에 따라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스트레스($t(211)=-.73, p=.47$), 주관적 안녕감($t(211)=-.40, p=.69$) 및 경제적 이동성 지각($t(211)=-.53, p=.60$)의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N=213$)

		<i>n</i>	<i>M</i>	<i>SD</i>	<i>t</i>
취업 스트레스	남성	76	2.79	0.91	-.73
	여성	137	2.88	0.88	
주관적 안녕감	남성	76	3.75	0.84	-.40
	여성	137	3.80	0.76	
경제적 이동성 지각	남성	76	3.15	0.97	-.53
	여성	137	3.22	0.84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응답이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일원배치 분석 결과, 취업 스트레스($F(4, 208)=2.07, p=.09$), 주관적 안녕감($F(4, 208)=1.26, p=.29$) 및 경제적 이동성 지각($F(4, 208)=0.84, p=.50$)의 학년에 따른 응답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년에 따른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N=213)

		<i>n</i>	<i>M</i>	<i>SD</i>	<i>F</i>
취업 스트레스	1학년	24	2.64	0.94	2.07
	2학년	37	2.61	0.87	
	3학년	59	2.81	0.94	
	4학년	81	3.00	0.77	
	5학년 이상	12	3.19	1.17	
주관적 안녕감	1학년	24	3.80	0.78	1.26
	2학년	37	3.82	0.81	
	3학년	59	3.82	0.73	
	4학년	81	3.80	0.80	
	5학년 이상	12	3.29	0.86	
경제적 이동성 지각	1학년	24	3.06	0.88	0.84
	2학년	37	3.17	0.91	
	3학년	59	3.24	0.90	
	4학년	81	3.15	0.86	
	5학년 이상	12	3.59	0.96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주요 변수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스트레스($F(2, 206)=1.08, p=.38$), 주관적 안녕감($F(2, 206)=1.05, p=0.39$) 및 경제적 이동성 지각($F(2, 206)=1.21, p=.31$)의 전공계열에 따른 응답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공계열에 따른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N=213)

		<i>n</i>	<i>M</i>	<i>SD</i>	<i>F</i>
취업 스트레스	인문계열	53	3.03	0.91	1.08
	사회계열	41	2.83	0.90	
	사범계열	16	2.60	0.87	

	공학계열	45	2.94	0.88	
	자연계열	46	2.74	0.89	
	예체능계열	6	2.43	0.80	
	기타	6	2.60	0.81	
주관적 안녕감	인문계열	53	3.70	0.70	
	사회계열	41	3.77	0.75	
	사범계열	16	3.94	0.98	
	공학계열	45	3.67	0.87	1.05
	자연계열	46	3.91	0.82	
	예체능계열	6	4.28	0.34	
	기타	6	3.54	0.50	
경제적 이동성 지각	인문계열	53	3.18	0.92	
	사회계열	41	2.91	0.82	
	사범계열	16	3.23	0.97	
	공학계열	45	3.19	0.91	1.21
	자연계열	46	3.40	0.87	
	예체능계열	6	3.42	0.85	
	기타	6	3.27	0.68	

* $p < .05$, ** $p < .01$, *** $p < .001$.

4.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

연구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09)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측변수에는 취업 스트레스, 결과변수에는 주관적 안녕감을 투입하였고, 조절변수에는 경제적 이동성 지각을 투입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낙관성과 능력주의를 투

입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취업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및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연령, 학년, 전공 만족도, 주관적 성적 수준, 주관적 취업 준비 수준, 월 평균 가계 소득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로 추가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스트레스($B=-.01$, $p=.95$)와 경제적 이동성 지각($B=.14$, $p=.31$)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스트레스와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상호작용도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5$, $p=.31$). 즉,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2는 기각되었다¹⁾.

1)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낙관성과 능력주의 변수만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04$, $p=.39$). 또한, 모든 통제변수를 제외하여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을 때에도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07$, $p=.18$).

표 6.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 (N=213)

	주관적 안녕감				
	<i>B</i>	<i>se</i>	<i>t</i>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취업 스트레스	-.010	.155	-.064	-.315	.295
경제적 이동성 지각	.142	.140	1.010	-.135	.419
취업 스트레스 × 경제적 이동성 지각	-.046	.046	-1.021	-.136	.043
낙관성	.451	.057	7.889***	.339	.564
능력주의	.031	.059	.531	-.085	.147
연령	.006	.024	.257	-.041	.053
학년	-.044	.047	-.938	-.138	.049
전공 만족도	.183	.041	4.458***	.102	.264
주관적 성적 수준	-.008	.049	-.163	-.105	.089
주관적 취업 준비 수준	.025	.050	.493	-.074	.124
월 평균 가계 소득	.007	.015	.434	-.023	.03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013	.025	.502	-.037	.062

* $p < .05$, ** $p < .01$, *** $p < .001$.

VI. 논 의

1.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동성을 낮게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을 더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은 $-.48$ 로, Cohen(1992)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을 측정함으로써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 변수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낙관성, 능력주의, 연령, 학년, 전공 만족도, 주관적 성적 수준, 주관적 취업 준비 수준, 월 평균 가계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Hayes(2009)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이동성 수준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2.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가설 중 하나인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정체성 확립과 진로 결정 시기에 놓여 있고 (이자영, 최용용, 2012; 주은선, 김경하, 2016),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취업 준비에 몰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영상, 2003; 백선주, 박주희, 2019; 윤우석, 2016; 전검구 등, 2000; 천만봉, 이종구,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개인의 정신건강의 저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들(김미영, 2017; 김범준, 2011; 김순희, 이선희, 2015; 김혜정, 2004; 류영미, 2022; 서경현, 2011; 안성아, 심미영, 2015; 임원균, 2015; 장형순, 박현주, 2021; 정지혜, 양수진, 2019; 조혜정, 2013; 한금상, 서경현, 2015; Coffman & Gilligan, 2002)을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은 성별, 학년 및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성별, 학년 및 전공계열과 관계 없이 전 학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내 취업 및 상담 기관에서 대학생들의 취업 관련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년별 취업 지원 및 전문 상담 등 취업 관련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예상하였던 바와는 달리,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인 관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이나 외적 자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들(김지근, 이기학, 2017; 류영미, 2020; 안성아, 심미영, 2015; 이상희, 2012; 조혜정, 2013)을 고려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되게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조절변수 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때도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관되게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등 두 변수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가자 수가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최소 연구 참가자 수를 산출하고,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가자 수는 213명으로 G-power에서 요구하는 최소 연구 참가자 수인 215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낙관성과 능력주의 외에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통제변수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G-power에서 요구하는 최소 연구 참가자 수와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가자 수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에 부족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켜 주요 가설을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이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선행 연구들을 반복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분석 결과,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아지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김순희, 이선희, 2015; 류영미, 2022; 서경현, 2011; 안성아, 심미영, 2015; 임원균, 2015; 장형순, 박현주, 2021; 정지혜, 양수진, 2019; 조혜정, 2013; 한금상, 서경현, 2015; Coffman & Gilligan, 2002)과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감과 긍정 정서는 더 적게 경험하고, 부정 정서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개인의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Yoon & Wong, 2014; Zhao et al., 2017)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을 살펴보고,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을 조절하는 새로운 변수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조망 확대 등 개인의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에 관심을 두었다(권미주, 2015; 김지근, 이기학, 2017; 류영미, 2020; 조혜정, 2013). 그러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및 정서적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고(강유리, 2006), 취업 여부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독립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한금상, 서경현, 2015). 대학생들에게 취업 준비는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임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을 지각하는 정도는 그들이 경험하는 취업 관련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 이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그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경제적 이동은 더 이상 활발하지 않다고 보고되었지만(김봉근 등, 2012), 한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인 지표

를 사용하였다(김성태 등, 2012; 김정훈 등, 2016; 박선경, 이내영, 2019; 이용호 등, 2021; 한준, 2016). 또한,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은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보다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더 나은 통찰력을 제공(왕위 등, 2015; 이승현 등, 2016; Jeon, 2020; Lewin, 1935)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주로 단일 문항과 사회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을 사용하여 한국인들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도구의 사용은 구성 타당도, 내적 일관성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같은 심리측정적 문제(Hinkins, 1995; Yoon & Wong, 2015)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심리측정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Yoon과 Wong(2015)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일부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거나 선행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월 평균 가계 소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월 평균 가계 소득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 참가자들의 월 평균 가계 소득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150만원 이하’의 응답이 51명(23.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연구 참가자들은 질문에 대한 응답의 기준을 가족 구성원들의 월 평균 소득보다 개인의 월 평균 소득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월 평균 가계 소득 질문지에 대한 응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참가자들의 월 평균 가계 소득과 경제적 이동성 지각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적 이동성 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보다, 미래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을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2017; Destin & Oyserman, 2010).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경제적 계층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게 하고, 학업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켜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적인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는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믿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Yoon과 Wong(2015)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는 Yoon과 Wong(2015)이 미국 사회를 기반으로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Yoon과 Wong(2015)이 개발한 척도의 내용을 한국 사회 맥락에 맞게 다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척도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이동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단일 문항이나 사회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단일 문항 척도와 Yoon과 Wong(2015)의 척도를 병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을 측정하고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을 개인적 수준에서의 상향 이동 가능성과 사회적 수준에서의 상향 이동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이동성 지각은 ‘세상이 공정하게 작동한다.’와 같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Belief in a Just World: BJW)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Yoon & Wong, 2015),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지각하는지에 대한 믿음은 현재의 노력이 미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이끌기 때문에 현재의 희생을 감내하게 만든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BJW-self)과 타인들은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으로 구분된다(Lipkus, 1991). 이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의 두 하위요인 중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였다(Khera, Harvey, & Callan, 2014). 관련하여,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은 취업 스트레스와 부적인 관련(안진아, 이지은, 2019)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지각 수준과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지각 수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 및 사회적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서로 다른 지각 수준은 개인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수준

에도 다르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동성 지각을 개인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과 사회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각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대학에서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의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나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불안과 절망을 다룬 청년 담론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은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최종렬, 2017). 특히, 교육이나 개인의 노력 및 능력이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 노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소속 대학과 지역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커뮤니티(예: 에브리타임)와 포털 사이트(예: 네이버) 카페를 통해 다양한 연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연구 참가자들의 소속 대학과 지역은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소속 대학과 지역에 따른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들의 경제적 이동성 지각 수준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개천에서 용난다’와 같은 표현은 우리 사회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사회적 및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수저계급론’과 같은 신조어의 등장은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교육이나 개인

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계층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취업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이동성 수준이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적 관계를 조절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전 학년에 걸쳐 경험하는 스트레스임을 밝혔다.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층 대상 연구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갈등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훈 (2019).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유리 (2006). 무용 전공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경필, 심미영 (2015).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379-391.
- 고진용, 문련화, 여준상 (2019). 경제적 이동성 지각이 특이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저항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20(4), 467-483.
- 권미주 (2015).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정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망 확대와 긍정적 초점변경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용주 (2020). (The) Effect of Perceived Economic Mobility on Prosocial Conformity.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혁우 (2017). 감사개입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변인들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인으로서의 삶의 의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김정희 (2011). 감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39-759.
- 김경욱, 조윤희 (2011). 대학 신입생의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 김다영 (2019).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스트

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령 (2014).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감사와 희망의 조절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영 (2017).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희망을 통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6), 29-51.

김민경 (2014).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2), 117-126.

김범준 (2011).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불행 관련 사건들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15-135.

김봉근, 석재은, 현은주 (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 노동경제논집, 35(2), 25-41.

김성경 (2003).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김성식, 이정재 (2017). 대학생의 흡연과 취업 스트레스, 취업 불안, 자아존중감 관련성에 관한 연구: 지방도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6), 93-110.

김성태, 전영준, 임병인 (2012). 우리나라 소득 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60(4), 5-43.

김순희, 이선희 (2015).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7(1), 63-72.

김영상 (2003).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우 (2018). 대학생이 지각한 취업 장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

- 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2), 155-163.
- 김영태 (2014).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778-2788.
- 김용수, 박현주 (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분석. 아동교육, 17(4), 63-76.
- 김정아 (2014). 비서학 전공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비서·사무경영연구, 23(1), 141-164.
- 김정훈, 김을식, 이다겸 (2016).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 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9(3), 157-192.
- 김종운, 이지은 (2015). 대학생의 감사성향이 분노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6), 409-423.
- 김지근, 이기학 (2017).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요구되는 대처자원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215-241.
- 김진영 (2020).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수, 채규만 (2014).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2), 1-26.
- 김혜정 (2004).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지혜, 이민규 (2011).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1), 159-183.
- 류영미 (2020).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스

- 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정 (2014). 낙관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취업 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 417-435.
- 박선경, 이내영 (2019). 누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비관 혹은 낙관하는가?. 사회과학연구, 27(1), 38-69.
- 박성권, 김해숙 (202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12(6), 267-278.
- 박성환 (2006). 특수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혁, 이웅택 (2013).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5-30.
- 박인주 (2018).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 지향목표의 매개효과. 관광경영연구, 83, 425-445.
- 백선주, 박주희 (2019). 취업 준비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2), 295-305.
- 서경현 (2011). 대학생의 스트레스, 문제 중심 대처 및 상/하향 비교 대처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8), 217-236.
- 서경현, 이경순 (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비교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327-343.
- 서인균, 이연실 (2014).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남, 녀 대학생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3),

25-53.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심지은, 안하얀, 김지혜 (201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2(1), 103-118.
- 안성아, 심미영 (2015).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10), 7021-7033.
- 안진아, 이지은 (2020). 취업 준비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취업 스트레스 간 관계: 지각된 성공 수준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2(3), 179-199.
- 양정승 (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추정. *노동경제논집*, 35(2), 79-115.
- 오중언 (2017). 취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조절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위, 김진우, 이한근, 이경미 (2015). 중국 산자이(Shānzhài)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소비자의 사회 계층 이동성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26(1), 151-171.
- 윤동춘 (2019).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이호선 (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09-137.
- 윤우석 (2016).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Agnew의 일반긴장 이론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95-118.

이미숙 (201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규 (2012). 행복도 선택이다. 서울: 더난출판사.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이서진, 한혜주 (2021). 유명인 자녀 광고에서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성이 제품태도와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준사회적 관계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3), 47-72.

이선희, 정복례, 김순희 (2015).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1), 115-126.

이승현, 이한근, 김영찬 (2016). 소비자의 사회이동성 인식이 실용재 복제품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기업과혁신연구, 9(1), 1-11.

이윤주 (2011). 행복해지기 위한 대학생의 노력. 아시아교육연구, 12(2), 63-84.

이자영, 최웅용 (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상담학연구, 13(3), 1481-1499.

이지혜 (2014). 대학생의 진로 미결정,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 배상운 (2019). 일개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및 우울 수준의 융복합적 관련성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7(4), 219-227.

이용호, 엄선비, 송지현 (2021). 부모의 사회 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3(2), 107-131.

임원균 (2015).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변인 연구. 스트레스研究, 23(3),

119-126.

- 장수미, 경수영 (201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4), 518-546.
- 장정현, 고재홍 (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희망의 조절효과. Korea Journal, 18(2), 101-116.
-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144.
- 장현갑, 강성균 (1998).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장형순, 박현주 (2021). 덕질 활동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행복감 비교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4(2), 98-105.
- 전겸구,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정병일, 배창일, 서종수 (2017).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79-279.
- 정의석, 노안영 (200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3, 85-101.
- 정지혜, 양수진 (2019). 성인 초기 청년들의 그릿과 정신적 안녕감: 진로소명과 취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3), 37-59.
- 조금이, 박현숙 (2011).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1), 160-169.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선희, 전경숙 (2015).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와 영향 요인. 스트레스研究, 23(2), 79-89.
- 조혜정 (201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

- 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1), 157-184.
- 주은선, 김정하 (2016).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3(4), 69-89.
- 최종렬 (2017).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 분석. 한국사회학, 51(1), 243-293.
- 최혜림 (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만봉, 이종구 (2013). 대졸 취업 예정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진로의식 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0(6), 191-214.
- 최미혜 (2017).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9, 347-375.
- 최승혜, 이해영 (201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 증상,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808-816.
- 탁진국, 임그린, 정재희 (2014). 행복증진을 위한 긍정심리기반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39-166.
- 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지표 2020.
- 한국경제연구원 (2021, November 18). 청년 대졸자 고용률 75.2% OECD 37개국 중 31위.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EXT_BBS_messageId=356280 에서 2022.01.29. 자료 얻음.
- 한금상, 서경현 (2015).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235-251.
- 한준 (2016). 한국의 사회이동: 현황과 배경. 현상과인식, 40(4), 45-74.
- 한혜림, 이지민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대학생 (4년제) 및 전문대학생 (2-3년제) 간의 다집단 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2), 197-206.
- 한혜주, 이경미 (2017). 소비자의 사회계층 이동성 인식이 자기표현동기와 상징적 제품 선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8(3), 1-20.
- 허창구 (2020). 스펙경쟁 사회에서 자기계발 동기와 자기계발 강박이 취업준비생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3(1), 93-117.
- 황성원 (1998).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주희, 박현주 (2020).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3(3), 175-183.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rgyle, M., & Martin, M. (1991). The psychological causes of happiness. In F. Strack, M. Argyle, & Schwarz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77-100). Oxford: Pergamon Press.
- Arnett, J. J. (2007). Suffering, selfish, slackers? Myths and reality about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1), 23-29.
- Alcántara, C., Chen, C. N., & Alegría, M. (2014). Do post-migration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matter for Latino immigrant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101*, 94 - 106.

Bak, H., & Yi, Y. (2020). When the American dream fails: The effect of perceived economic inequality on present oriented behavior. *Psychology & Marketing*, *37*(10), 1321-1341.

Baumeister, R. F., & Vohs, K. D. (2007). Self regulation, ego depletion, and motivat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115-128.

Bernardo, A. B., Clemente, J. A. R., & Wang, T. Y. (2018). Working for a better future: Social mobility beliefs and expectations of Filipino migrant workers in Macau.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70*(4), 350-360.

Bjørnskov, C., Dreher, A., Fischer, J. A., Schnellenbach, J., & Gehring, K. (2013). Inequality and happiness when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economic reality do not match.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91*, 75-92.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Browman, A. S., Destin, M., Carswell, K. L., & Svoboda, R. C. (2017). Perceptions of socioeconomic mobility influence academic persistence among low socioeconomic status stud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2*, 45-52.

Browman, A. S., Destin, M., Kearney, M. S., & Levine, P. B. (2019). How economic inequality shapes mobility expectations and behaviour in disadvantaged youth. *Nature Human Behaviour*, *3*(3), 214-220.

- Cacioppo, J. T., Gardner, W. L., & Berntson, G. G. (1999). The affect system has parallel and integrative processing components: Form follows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5), 839-855.
- Cheung, F. (2016). Can income inequality be associated with positive outcomes? Hope mediates the positive inequality - happiness link in rural China.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4), 320-330.
- Coffman, D. L., & Gilligan, T. D. (2002).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4*(1), 53-66.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ohen, S., & McKay, G. (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 S. E. Taylor, & J. E. Sing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pp. 253-267). Hillsdale, NJ: Erlbaum.
- Davidai, S. (2018). Why do Americans believe in economic mobility? Economic inequality, external attributions of wealth and poverty, and the belief in economic mo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9*, 138-148.
- Day, M. V., & Fiske, S. T. (2016). Movin' on up? How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affect our willingness to defend the system.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3), 267-274.
- Destin, M., & Oyserman, D. (2010). Incentivizing education: Seeing schoolwork as an investment, not a chore. *Journal of Experimental*

- Social Psychology*, 46(5), 846-849.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5), 1105-1117.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u, H., Liang, Y., Chi, P., & King, R. B. (2021). Chinese perceive upward social mobility: How future mobility is influenced, but not limited by past mo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6(6), 951-960.
- Gottschalk, P., & Spolaore, E. (2002). On the evaluation of economic mobil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69(1), 191-208.
-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이영권 역). 신영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Heiserman, N., Simpson, B., & Willer, R. (2020). Judgments of economic fairness are based more on perceived economic mobility than perceived inequality. *Socius: Sociological Research for a Dynamic World*, 6, 1-12.
- Henderson, A. S. (1984).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social support. *Social Psychiatry*, 19(2), 49 - 52.
- Hinkin, T. R. (1995). A review of scale development practices in the study of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21(5), 967-88.
- Jeon, B. C. (2020). *Personal social mobility beliefs and motivation for goals*. Doctoral dissertation,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 Kraus, M. W., & Tan, J. J. (2015). Americans overestimate social class mo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8*, 101–111.
- Khera, M. L., Harvey, A. J., & Callan, M. J. (2014). Beliefs in a just world, subjective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 refugees among refugee workers. *Social Justice Research, 27*(4), 432–443.
- Kwon, Y., & Yi, Y. (2019). The effect of perceived economic mobility on customer aggression toward service employees: A darker aspect of customer behavior. *Psychology & Marketing, 36*(11), 1120–1132.
- Kwon, Y., & Yi, Y. (2021). When perspective-taking fails to inhibit customer aggression toward service employees.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1*–21.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 Publishing.
- Lee, S. Y. (2016). Massification without equalisation: The politics of higher education, graduate employment and social mobility in Hong Kong.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9*(1), 13–31.
- Lewin, K. (1935).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Y: McGraw-Hill book.
- Lipkus, I. (1991). The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glob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and th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1), 1171–1178.
- Lopez, S. J., Snyder, C. R., & Pedrotti, J. T. (2003). Hope: Many definitions, many measure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 measures* (pp. 91 - 10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9), 954-969.
- Monteiro, A. M., Santos, P. J., & Gonçalves, C. M. (2015). Building a scale of the meanings of transition from higher education to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3), 481-492.
- Ong, A. D., Edwards, L. M., & Bergeman, C. S. (2006). Hope as a source of resilience in later adult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7), 1263-1273.
- Oyserman, D. (2007). Social identity and self-regulation. In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432 - 453). The Guilford Press.
- Oyserman, D. (2013). Not just any path: Implications of identity-based motivation for disparities in school outcom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3*, 179-190.
- Rabkin, J. G., & Struening, E. L. (1976). Life events, stress, and illness. *Science*, *194*(4269), 1013 - 1020.
- Rao, T. T., Yang, S. L., Yu, F., Xu, B. X., & Wei, J. (2021). Perception of class mobilit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prosocial behaviour.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1), 1-15.
- Reynolds, J., May, M., & Xian, H. (2019). Not by bread alone: Mobility experiences, religion, and optimism about future mobility. *Socius: Sociological Research for a Dynamic World*, *5*, 1-15.
- Roese, N. J., & Sherman, J. W. (2007). *Expectancy*. The Guilford Press.
- Sawhill, I. V., & Morton, J. E. (2007). *Economic mobility: Is the*

American dream alive and well?. Washington, DC: Economic Mobility Project.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chlossberg, N. K. (1981). A model for analyzing human adaptation to transition. *Counseling Psychologist*, *9*(2), 2–18.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 - 585.
- Shariff, A. F., Wiwad, D., & Aknin, L. B. (2016). Income mobility breeds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Cross-natio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1*(3), 373–380.
- Shepherd, M., Cooper, B. A., Brown, C., & Kalton, G. W. (1966).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2017). ACCEL: A new model for identifying the gifted. *Roeper Review*, *39*(3), 152–169.
- Swan, L. K., Chambers, J. R., Heesacker, M., & Nero, S. S. (2017). How should we measure Americans' perceptions of socio-economic

- mobility?.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2(5), 507–515.
- Vaquera, E., Aranda, E., & Sousa-Rodriguez, I. (2017). Emotional challenges of undocumented young adults: Ontological security, emotional capital, and well-being. *Social Problems*, 64(2), 298–314.
- Wakslak, C. J., Jost, J. T., Tyler, T. R., & Chen, E. S. (2007). Moral outrage mediates the dampening effect of system justification on support for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Psychological Science*, 18(3), 267–274.
- Wang, X., Chen, W. F., Hong, Y. Y., & Chen, Z. (2022). Perceiving high social mobility breeds materialism: The mediating role of socioeconomic status uncertain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39, 629–638.
- Wiwad, D. C. M. (2015). *The rags-to-riches story of income mobility and its impact on emotion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Yang, C., & Zhao, S. (2019). Determining preference for potential: The role of perceived economic mobilit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7(6), 1–8.
- Yoon, S., & Kim, H. C. (2016). Keeping the American dream alive: The interactive effect of perceived economic mobility and materialism on impulsive spend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3(5), 759–772.
- Yoon, S., & Wong, N. (2014). Perceived economic mobility: Measurement, validity, and implication for consumer well-being and materialism. *ACR North American Advances*, 42, 750–751.
- Yoon, S., & Wong, N. (2015). “*The Rainbow and the Pot of Gold*:

Consumers' Beliefs about Economic Mobility, Economic Striving and Financial Risk Taking." working paper, University Wisconsin.

Zhao, Y., Li, Y., Heath, A., & Shryane, N. (2017). Inter- and intra-generational social mobility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mainland Chin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8*, 54-66.

ABSTRACT

The Effect of Job-Seeking Stress on Subjective Well-Be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Economic Mobility

Ujeo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dditional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is moderated by undergraduate students' belief in the upward mobility possibility of the economic class in society. Specifically, we predicted that undergraduate students' job-seeking stres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Nonetheless, undergraduate students who perceived a higher level of economic mobility in society would weake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o test this hypothesis,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undergraduate students aged between 19 and 29 years. The study

participants responded to items regarding job-seeking stress,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economic mobility, including control variables such as optimism, meritocracy, and demographic features. We fou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Specifically, higher the job-seeking stress, lower the subjective well-being.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perceived economic mobility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his study is essential because we examined the perception of economic mobility in Korean for undergraduate students. Further, we investigated how the individual's perceived economic mobility plays a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Finally, based on our results, we discussed the study'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job-seeking stress,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economic mobility, moderation effect

부 록

부록 1. 연구 질문지

부록 1-1. 취업 스트레스 척도

부록 1-2. 단축형 행복 척도

부록 1-3.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

부록 1-4. 낙관성 척도

부록 1-5. 능력주의 척도

부록 1-6.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부록 1. 연구 질문지

부록 1-1. 취업 스트레스 척도(강유리, 2006)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께서 경험하시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 태도, 혹은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별도로 정해진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						
2. 취업에 대해 걱정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난다.						
3. 요즘 나는 꿈속에서도 취업 걱정을 한다.						
4. 취업을 못하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된다.						
5. 요즘 나는 취업 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 복용이 늘었다.						
6.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도 잃을 정도이다.						
7. 취업에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또다시 취업에 실패하게 될까 두렵다.						
8.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취업을 해야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진다.						
9. 취업 자리를 놓칠까 봐 많은 시간을 들여 취업 관련 사이트나 신문, 잡지의 구직란을 꼼꼼히 살펴본						

다.						
10. 나의 대학 공부로 인해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므로, 내가 꼭 취업해서 갚아드려야 한다.						
11. 나는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상 취업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						
12.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어 취업을 해야만 한다.						
13. 나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14. 가족과의 불화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5.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6. 나는 실력을 갖췄지만 우리 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 전형에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17. 지도교수님이 나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지도해 주지 않으셔서 섭섭하다.						
18. 나는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조건 때문에 졸업 후 취업에서 불리할 것이다.						
19. 나는 취업에 있어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0. 나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 학점 관리를 제대로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1. 나는 능력(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22. 나는 장차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성격 스트레스: 1, 2, 3, 4, 7, 8
- 가족 환경 스트레스: 10, 11, 12, 13, 14
- 학업 스트레스: 19, 20, 21, 22
- 학교 환경 스트레스: 15, 16, 17, 18
- 취업 불안 스트레스: 5, 6, 9

부록 1-2. 단축형 행복 척도(구재선, 서은국, 2011)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내가 속한 집단 - 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각 측면에서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하는 그러한 **삶의 각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보기 중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전혀 느끼지 않았다’에서부터 ‘항상 느꼈다’까지의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았다	약간 느끼지 않았다	약간 느꼈다	느꼈다	매우 느꼈다
4. 즐거운						
5. 행복한						
6. 편안한						
7. 짜증나는						
8. 부정적인						
9. 무기력한						

- 삶의 만족도: 1, 2, 3
- 긍정 정서: 4, 5, 6
- 부정 정서: 7, 8, 9

부록 1-3. 경제적 이동성 지각 척도(Yoon & Wong, 2015)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께서 지각하시는 경제적 이동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각 문항에 관한 귀하의 생각, 태도, 혹은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별도로 정해진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부모 소득에 달려 있다.*						
2. 출생 환경과 상관없이 큰 부를 얻는 일은 매우 가능하다.						
3.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묘사한다.						
4. 누구에게나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5. 누구에게나 경제적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있다.						
6. 우리 사회는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7.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분명히 불이익을 받게 된다.*						
8.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은 역채점 문항)

부록 1-4. 낙관성 척도(Scheier, Carver, & Bridge, 1994)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께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는 관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 태도, 혹은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별도로 정해진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						
2.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						
3.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4. 나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5.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즐긴다.						
6. 나에게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7.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8. 나는 쉽게 당황하지 않는다.						
9.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						
10. 전반적으로 볼 때 나에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은 역채점 문항)

- 긍정적 진술: 1, 4, 10
- 부정적 진술: 3*, 7*, 9*
- 허위 진술: 2, 5, 6, 8

부록 1-5. 능력주의 척도(박선경, 이내영, 2019)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께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성취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 태도, 혹은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별도로 정해진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고위층의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2.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결과이다.						
3. 한국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4. 한국 사회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						

(*은 역채점 문항)

부록 1-6.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2. 귀하의 만 나이는 몇 세입니까? (예를 들어 만약 만 26세라면, 26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만 ()세

3. 귀하는 현재 몇 학년이십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이상

4. 귀하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사범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⑥ 예체능계열
⑦ 기타()

5. 귀하는 전공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6. 귀하께서는 귀하의 평균 평점(GPA)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편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은 편이다

7. 귀하께서는 귀하의 취업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②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 ③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 ④ 거의 준비되었다.
- ⑤ 매우 준비되었다.

8. 귀하께서는 귀하의 정치적 성향(이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진보적인 편이다. ② 대체로 진보적인 편이다.
- ③ 중도인 편이다. ④ 대체로 보수적인 편이다.
- ⑤ 매우 보수적인 편이다.

9. 귀하의 월 평균 가계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50만원 이하
- ② 151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 ③ 25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 ④ 351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 ⑤ 451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 ⑥ 551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 ⑦ 651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⑧ 751만원 이상 850만원 이하
- ⑨ 851만원 이상 950만원 이하
- ⑩ 951만원 이상



10. 그림 속 사다리의 위쪽에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가장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합니다. 반면, 사다리의 아래쪽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교육을 적게 받았으며,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합니다.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귀하께서는 본인이 위의 사다리 칸 중 어느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한국인들에 비하여 귀하께서 현재 사다리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번호로 나타내 주십시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